

# 특장차산업 경쟁력 확보 지원

# 전북도,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

### 전북도, 고도화 위해 '활성화·산업생태계 모델 구축사업' 추진

전북도가 특장차산업 고도화를 위해 '2021년 특장차산업 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모델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전북도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이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수요공급형 특장부품 경쟁력 확보 지원(7건) ▲특장차 공동브랜드 마케팅 지원(2건)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8건) ▲특장 특화분야 신기술 전문인력 양성 지원(10명) 등이다.

특장차(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 고도화를 위해 수요공급형 특장부품 개발지원(7건 내외, 최대 7,000만원/건)의 경우, 도내 특장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집중 지원

해 기업의 특장차 특화 기술개발과 제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전북의 특장 산업 홍보영상 제작, SNS 키워드 광고 활동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국내·외 마케팅을 통한 내수판매 증진과 해외 수출 등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대학과 연계 협력해 특장분야 인재 육성 및 공급으로 인력수요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자동차융합기술원 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pms.jat.re.kr](http://pms.jat.re.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지원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매일 접수 및 평가를 진행한다.

한편, 특장차 산업은 전북의 상용차

산업과 연계효과가 큰 고부가가치산업이자 틈새시장으로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이에, 전북도는 전국 최초 특장차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김제 특장차 자기인증센터를 유치해 생산과 인증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내 유일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장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의 수요에 적합한 특장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전북도가 특장차산업의 선제적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4월 2일까지 신청... 대상자 선정되면 인증 컨설팅·심사·발급 전 과정 정부 무료 지원

전북도는 10일 도내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를 오는 4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을 인증하는 농식품 국가 인증제도다.

인증대상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하는 식량작물·특용작물·채소·과수 등 61개 품목이 해당된다.

신청한 농가는 인증요건 사전검토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며, 인증 컨설팅·심사·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부가 무료 지원하고, 최종 심의를 거쳐 8월 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정부는 인증취득 농산물의 판로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사로 구성된 유통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544억원 상당의 인증 농산물을 판매한 바 있다.

신청을 원하는 도내 농가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전북 익산 소재, [www.fact.or.kr](http://www.fact.or.kr))에 이메일, 우편(등기)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소비자가 농산물 구매 시 환경 보전과, 공정무역 등 상품에 담긴 가치를 보고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친환경 및 GAP 인증 농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도내에는 벼 205농가, 포도 102농가, 사과 59농가, 파프리카 39농가, 복숭아 34농가, 상추 26농가 기타 6농가 등 총 471농가가 507ha 면적에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신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진행

### 내달 2일까지 학교주변·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

전북도가 신학기를 맞아 전북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4주간 도내 학교주변 및 번화가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집중 감시활동에는 신학기 학교주변과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전북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시·군 및 경찰서가 함께 나선다.

도는 밀터방, 흡가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북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이정선)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의 안전한 환경과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유해환경감시단은 찾아가는 감시순찰(캠페인), 청소년근로권익 보호 활동, 유해매체물모니터단 운영, 학생 순찰대(YP) 양성,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역량강화교육 등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을 오는 17일까지 최대 20명까지 추가 모집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모니터단을 3월 19일까지 8명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전북도유해환경감시단(063-224-5501)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jonjuwca.or.kr>)에서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은 "도내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소년 보호활동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

###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전북도가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진료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2억원의 예산으로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후건강관리 사업은 지난해 전북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자체 사업으로, 지난 한 해 도내 4,598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으며, 대상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출산 후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은 쿠폰을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이 가능한 항목은 산후치료와 관련한 산부인과나 한방과 외래치료

비(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침구치료, 약침, 한약재)이며,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에 관계없는 미용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노창환 도 건강안전과장은 "만족도가 매우 높은 이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 보건소·지정 의료기관과 함께 홍보해 도내 산모들이 안정적으로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현장·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방문해 대응상황 확인·공공부문 솔선수범 당부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10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현장을 방문하는 등 도내 미세먼지 저감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통상 3월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로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실시됐다.

최 부지사는 이날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현장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방문하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격려·방문했다.

먼저, 전주시에서 자체 시행 중인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현장을 방문하고, 단속 공무원과 함께 운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초과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전북도는 3월 말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하며, 시·군과 함께 오는 17일과 24일 양일간 도내 주요 도로 14개소에서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최 부지사는 이어,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방문, 중앙제어실에서 가동률 조정 등 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소각자원센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가동률 조정, 약품 투입 등 자체 실정에 맞게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해야 한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전북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앞장서 저감정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한다"며 "도민들께서도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10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현장을 방문하는 등 도내 미세먼지 저감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ijmaeil.com](http://www.ijmaeil.com)에서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